

## 중·고등학생의 교복 착용 실태와 만족도 비교

이지민 · 이정란 · 구영석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 Comparison of Actual Status and Satisfaction of School Uniform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i-Min Lee, Jeong-Ran Lee and Young-Seok Koo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earing situation and satisfaction of school uniforms with the middle and high school boys and girls, who have been in uniforms for one or more years. The subjects for the survey were a total of 560 from the 2nd and the 3rd grade of the middle school, and the 1st and the 2nd grade of the high school. The survey was performed with the questionnaire of 60 questions; 36 questions related to the actual status, such as the purchase, size, repair, and design of a school uniform, and 24 questions related to satisfac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Regarding the school uniform purchase, middle school students attached importance to famous brand, while high school students valued design above everything else. The students confused with the school uniform sizing systems were 82.1 % and 72.5 %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2. 43%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34% of high school students had experiences of repairing their school uniforms. Regarding the reason for repair, the size misfit was the highest. Boys preferred a single breasted boxy jacket with middle hip line length, and straight trousers, and girls preferred a fitted jacket of waist line length, and flare skirt of the knee line length. 3. School uniform satisfaction score showed that studen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school uniforms so much. Middle school students had significantly lower satisfaction about the design and psychological protection than high school students. Even though high school students showed lower satisfaction about the price and the care of school uniform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m.

**Key words:** School uniform,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ctual status of school uniform, Satisfaction of school uniform

## 1. 서 론

청소년의 의복 만족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이 되므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보다 만족스럽게 영위할 수 있게 한다. 교복은 청소년기로 대변되는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동안 착용하는 의복으로 청소년들의 의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오늘날의 사회적 변화와 개방된 교육체제하에서 감각추구가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김혜정, 2001; 장혜경, 김인숙, 1999). 실제로 교복착용의 포변화와 다양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하여 패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는 중·고등학생들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심미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시기에 색상이나 디자인, 활동성

등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교복에 대한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청소년기에 정서적,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착용 실태를 조사하고 교복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소은, 2001).

교복 만족도는 대부분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한 디자인, 치수, 교복의 사회·심리적인 측면에 대하여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김혜정, 2001; 이경민, 2003; 이혜경, 2000; 이혜주, 2006; 임주희, 2004), 그 대상으로는 특히 여자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것이 많다. 이는 여학생들이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기인하나, 교복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 등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므로 남녀를 포함하여 교복 착용 경험이 다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복 만족 기준과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벗어나 교복을 처음 착용하는 중학생과 교복 착용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간에 교복을 선택하는 기준과 선호하는 경향 등의 차이 등 교복구입 및 착용 실태와 교복 착용 후 느끼는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교복 아이টে모르는 동복을 선정하였으며, 교복실태 중 교

Corresponding author; Jeong-Ran Lee  
Tel. +82-51-510-2841, Fax. +82-51-583-5975  
E-mail: lrj@pusan.ac.kr

복구입과 변형 및 수선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복디자인과 교복치수에 있어서는 성별 선호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착용자 중심의 교복이 생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청소년기와 교복

의복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인간의 행태와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기에게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기의 의복은 자신감의 획득, 동년배 집단과의 동조, 사회적 승인을 위한 도구 및 개성을 추구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착용하고 있는 의복이 그들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복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이며 과업을 수행하려는 의욕이 높았다(구자명, 이명희, 1994). 또한 이 시기에는 신체적 성숙과 더불어 성적 관심이 증대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성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며, 자신의 외모나 행동에 관심이 많아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정도로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인지한다고 느낀다. 때문에 이 시기는 눈에 보이거나 직접 느낄 수 있는 의복, 신체적 외모, 혹은 매너로써 집단의 인정을 받으려 하며, 이러한 요인이 의복에 대한 관심을 생의 어느 시기보다 증가시켜 자신의 생활의 지배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이인자, 1992).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중, 고등학생에게 교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박정희, 1998). 교복은 단체생활을 원활히 하고 학생에게 면학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신분과 소속감,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되며 학생의 공식적인 의복, 즉 정장의 역할을 한다(임주희, 2004). 교복 디자인의 요건은 심미성, 상징성, 기능성, 경제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심미성은 청소년들의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 심리적 쾌적감을 가지게 하며, 상징성은 소속 단체의 이념과 개성을 표현하는 반면 착용지도 단체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기능성은 교복 착용으로 인한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동시에 외관이 경쾌하고 쾌적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과 조화를 이루게 하며, 경제성은 적정가격과 내구성이 좋고 손질이 용이해야 하는 것이다(박현숙, 1993).

### 2.2. 교복착용 실태와 교복 만족도

교복착용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정혜원, 정인순(2005)은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평가와 교복변형에 관한 연구에서 교복에 대한 심미성, 쾌적성, 경제성, 관리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교복치수에서도 여자 중·고등학생은 청소년기의 신체발달과정의 성장기와 성숙기 초기단계로 개인에 따른 성장속도의 차이가 큰 시기이기 때문에 키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슴둘레를 변화시킨 한 가지 치수만 제작하

지 말고, 많은 학생이 속하는 키의 범위에서는 가슴둘레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치수 규격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경민(2003)은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착용실태를 조사하고, 교복 생산 업체를 조사하여 교복치수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기의 신체 계측치를 분석하여 커버율이 높은 교복치수 체계를 설정하였다. 김혜정(2001)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각 부위의 치수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 교복치수의 불만사항으로 '스커트 폭이 커서 불편하다', '교복 치수가 전체적으로 크다', '체형에 맞지 않고 사이즈도 없으며 또한 업체별로 치수가 다르다' 등이 지적되었다.

교복 만족도에 대하여 김희순, 정옥임(2001)은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현재 착용중인 교복의 디자인 및 색상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숙(1993)은 서울시내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착용 실태 및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 연구 결과 재킷은 테일러드 칼라의 싱글 여밈, 스커트는 부분주름스커트를 많이 착용한다고 하였다.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은 재킷은 허리가 약간 들어간 테일러드 재킷을 선호하고 허리선과 엉덩이선의 중간 정도의 길이, 블라우스는 셔츠 칼라에 셔츠소매, 스커트는 무릎선 정도의 길이의 플레어스커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주희(2004)는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교복에 대한 만족도와 교복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착용중인 교복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활동하기 불편하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중생과 여고생의 입고 싶은 스타일과 선호하는 디자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그들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디자인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은(2001)은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교복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의 요인들 중 여학생은 심미성 요인과 신분 상징성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남학생은 기능성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희(1996)의 연구에서도 교복만족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았으며 신분 상징성, 유행성, 관리 및 세탁성, 신체적 안락감, 심리적 안락감, 경제성 등에서 모두 여학생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교복의 만족 및 불만족 원인은 활동성과 디자인 측면이 많이 나타났고 기능성과 심미성 및 유행성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이를 개선하여 교복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을 차별화하여 교복 불만족의 원인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타깃집단에 적합한 교복을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3. 연구방법 및 절차

### 3.1. 조사대상 및 방법

#### 3.1.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내 중·고등학생에서 교복착용 경험이 짧은 중학교 1학년과 수험생인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중학교

Table 1. 조사대상자의 분포 (단위: 명(%))

성별	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남	52(28.6)	50(27.5)	19(10.4)	61(33.5)	19(10.4)	61(33.5)	182
여	95(25.1)	98(25.9)	115(30.4)	70(18.5)	115(30.4)	70(18.5)	378
전체	147(26.3)	148(26.4)	134(23.9)	131(23.4)	134(23.9)	131(23.4)	560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3개 학교, 고등학교 5개 학교를 설문조사 하였다. 2006년 3월 28일~4월 4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6년 4월 10일부터 5월 3일까지 각 학교별로 전체 620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에서 응답이 불완전한 60부를 제외한 총 56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학년별 분포 및 성별은 Table 1과 같다. 설문조사한 학교의 교복 형태는 Fig. 1에 제시하였다.

3.1.2. 조사내용 및 방법

동복을 중심으로 재킷의 착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교복 착용실태와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김세희, 2003; 김혜정, 2001; 이경민, 2003; 이소은, 2001; 임주희, 2004)를 바탕으로 한 문항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교복착용 실태 관련 36문항, 교복 만족도 관련 24문항으로 총 60문항이었다. 교복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다.

3.2. 통계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롯한 일반적인 실태분석은 빈도분석,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교복착용 실태와 만족도 문항은  $\chi^2$  검증, t-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고찰

4.1. 교복 착용실태 비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총 560명으로 중학생이 295명(52.7%), 고등학생이 265명(47.3%)이었다. 남녀의 비율은 남학생이 32.5%, 여학생이 67.5%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가족의 총 월수입은 중학생 23.4%, 고등학생 34.0%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4.1.1. 교복 구입

교복의 구입 시 중학생 75.9%, 고등학생 66.4%가 기성복을 구입한다고 응답하여 평균적으로 약 70%의 학생들이 기성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개별맞춤(중학생 20%, 고등학생 29.1%)과 극소수 교복을 물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을 구입하는 장소로는 대리점에서의 구입이 중학생 93.6%, 고등학생 92.5%로 가장 많았으며, 재 구입 시에는 대형할인매장, 공동구입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구입 시에 중학생은 96.9%가 부모님과 동행하였으며, 고등학생은 79.6%로 다소 낮아졌으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김세희(2003) 연구의 67.8% 보다 높았다. 교복 재 구입 시에는 친구와의 동행이 20%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복 교복 구입 시 교복 상표 선택 기준은 '디자인이 세련되어서', '유명브랜드라서', '매장이 가까워서'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은 '유명브랜드라서', 고등학생은 '디자인이 세련되어서'가 가장 높아 중·고등학생의 상표 선택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Fig. 2).

교복 구입 시 재킷은 한 벌 구입이 중학생 88.1%, 고등학생 91.2%로 가장 많았으며, 바지와 스커트도 1벌 구입이 가장 많았다. 하의의 경우 바지를 2벌 구입하는 중학생은 37.6%, 고등학생 29.1%로 나타났으며, 스커트를 2벌 구입하는 중학생은



Fig. 1. 조사 대상 학교의 교복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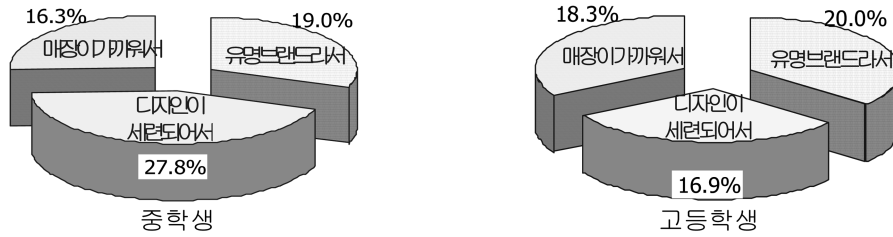


Fig. 2. 교복상표 선택 이유

Table 2. 교복구입 시 치수체계 인식 (단위 : 명(%))

치수 판단	집단	중학생 (N=295)	고등학생 (N=265)	$\chi^2$
전혀 알 수 없음		65(22.0)	44(16.6)	
업체마다 달라서 알기 어려움		63(21.4)	44(16.6)	
혼돈스러움		114(38.7)	104(39.3)	13.38**
쉽게 알 수 있음		47(15.9)	70(26.4)	
기타		6(2.0)	3(1.1)	

\*\*P<.01

16.7%, 고등학생은 11.5%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은 교복 치수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1$ ) 교복치수에 대해 '혼돈스럽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전혀 알 수 없다', '업체마다 달라서 알기 어렵다' 등을 포함하면 중학생 82.1%, 고등학생 72.5%가 교복치수를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Table 2). 중학교 때 교복을 착용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들도 여전히 교복의 치수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알 수 있다'는 응답은 중학생은 16%, 고등학생은 26.6%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중학생 53.4%, 고등학생 68.8%가 직접 입어보고 치수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덕하(2004)의 연구에서 교복업체마다 치수체계에 대한 제품치수가 달라 교복 구입 시 구매자가 치수선택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착용 시 맞춤새 불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한 점과 일치하였다.

4.1.2. 교복변형 및 수선

조사 결과 중학생 43%, 고등학생 34%가 교복 변형을 포함한 수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Fig. 3). 변형에 대한 견해로 '각자의 개성이므로 찬성' 한다는 의견이 중학생 45.1%, 고등학생 48.3%로 가장 많았으며, '치수가 맞지 않을 때 고쳐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8.3%, 35.5%였다. 반면 '학생답지 않아서 찬성하지 않음'이나 '활동하기 불편 할 것이므로 찬성하지 않음'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7.1%에 지나지 않아 교복 변형에 대해 긍정적이며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hi^2$  검증 결과 변형 및 수선 이유에 대해 중·고등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이는 선행연구(고애란, 김양진, 1996; 김혜정, 2001; 이혜경, 2000)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교복 변형이 하나의 개성표현으로 간주되며, 교복도 시대의 유행 스타일에 맞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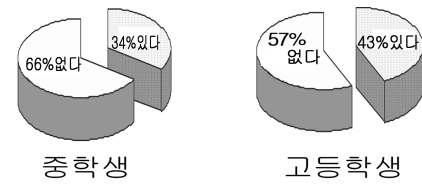


Fig. 3. 교복 수선 경험

Table 3. 교복 변형 및 수선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의견	집단	중학생 (N=295)	고등학생 (N=265)	$\chi^2$
각자의 개성이므로 찬성		132(44.8)	128(48.3)	
치수가 맞지 않을 때 고쳐 입는 것에 찬성		113(38.3)	94(35.5)	
유행에 맞게 고쳐 입는 것 필요		29(9.8)	24(9.1)	1.58
학생답지 않아서 찬성하지 않음		16(5.4)	12(4.5)	
활동하기 불편 할 것이므로 찬성하지 않음		5(1.7)	7(2.6)	

청소년의 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교복 변형 및 수선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선 이유 조사에서도 중·고등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치수가 맞지 않아서' 수선한 비율이 중학생 61.8%, 고등학생 57.1%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교복의 치수 불만족이 꽤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교복 치수체계가 청소년의 다양한 체형의 특성을 커버하지 못함을 반영한 것이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는 중학생 18.4%, 고등학생 30.1%로 나타났다(Table 4).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혜경, 김세희(2004)의 연구 결과에서도 교복 변형의 이유를 미적, 심리적, 실용적 측면으로 분류하였을 때 실용적인 면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4.1.3. 성별 교복디자인 선호

Table 4. 교복 변형 및 수선 이유 (단위 : 명(%))

이유	집단	중학생 (N=136)	고등학생 (N=93)	$\chi^2$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25(18.4)	28(30.1)	
치수가 맞지 않아서		84(61.8)	53(57.1)	5.31
달거나 뜯어져서		11(8.0)	6(6.4)	
활동하는데 불편해서		16(11.8)	6(6.4)	

**Table 5.** 선호하는 재킷 길이 (단위 ; 명(%))

집단 \ 길이	허리선	허리와 엉덩이 중간선	엉덩이선	기타	전체	$\chi^2$
남학생	49(26.9)	97(53.3)	33(18.1)	3(1.7)	182(100)	140.15***
여학생	280(74.2)	82(21.8)	3(0.8)	12(3.2)	378(100)	

\*\*\*P≤.001

**Table 6.** 선호하는 재킷 여밈 및 실루엣 (단위 ; 명(%))

집단 \ 형태	몸에 붙는 베스트형	박스형 싱글 브레스트	몸에 붙는 스펀서형	박스형 더블 브레스트	기타	전체	$\chi^2$
남학생	12(6.6)	127(69.8)	2(1.1)	34(18.7)	7(3.8)	182(100)	325.81***
여학생	217(57.4)	22(5.8)	102(27.0)	28(7.4)	9(2.4)	378(100)	

**Table 7.** 선호하는 재킷 칼라 (단위 ; 명(%))

집단 \ 형태	테일러드 칼라	라운드 네크라인	스테인 칼라	브이 네크라인	기타	전체	$\chi^2$
남학생	114(62.4)	30(16.6)	20(11.2)	13(7.1)	5(2.7)	182(100)	6.53
여학생	231(61.1)	70(18.5)	52(13.6)	11(3.0)	14(3.8)	378(100)	

다음은 중·고등학생의 성별 교복디자인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이다. 현재 입고 있는 재킷길이는 중학생 56.6%, 고등학생 46.8%가 허리선과 엉덩이선 중간 길이였다. 교복 재킷 길이의 선호에 있어서는 남학생 53.3%가 허리와 엉덩이 중간선을 선호한 반면 여학생은 74.2%가 허리선길이의 짧은 재킷을 가장 선호하여 남녀 사이에 뚜렷한 유의차가 있었다(Table 5). 교복 상의길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허리까지 오는 길이를 선호하였고, 여자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경우 가장 길이가 긴 엉덩이까지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이성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편안함보다 아름다움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여자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은 편안함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김화순, 정옥임, 2001).

교복의 여밈 및 실루엣에 있어서는 대상 학교 중 1개 학교만 더블 여밈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싱글 여밈이었으며, 남녀 모두 싱글 여밈을 선호하였다. 남학생은 69.8%가 박스형을, 여학생은 57.4%가 몸에 붙는 베스트형을 선호하여 남녀별로 선

호하는 실루엣에 뚜렷한 유의차를 보였다(Table 6).

현재 입고 있는 교복 재킷의 칼라모양은 중학생 100%, 고등학생 86%가 테일러드 칼라였으며, 또한 가장 선호하는 칼라형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라운드 네크라인을 선호하였고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7). 따라서 중·고등학생 남학생은 허리선과 엉덩이선 중간 길이의 테일러드 칼라 싱글브레스트형 재킷을, 여학생은 허리선 길이의 테일러드 칼라에 몸에 붙는 베스트 재킷을 가장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는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학생들이 유행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전체적인 실루엣 뿐 아니라 디테일, 색상, 재질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개성과 요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유경숙, 1991)에서 허리가 약간 들어간 형과 헐렁한 박스형의 테일러드 칼라 더블재킷이 선호하는 디자인이었던 것도 교복 디자인 선호가 그 시대의 유행과 밀접함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입고 있는 교복 스커트 길이는 여자 중학생 63.2%, 여자 고등학생 50.8%가 무릎선(내추럴 라인 스커트)이었으며, 스

**Table 8.** 선호하는 스커트(여학생) (단위 ; 명(%))

집단 \ 형태	플레이 스커트	부분주름스커트	타이트 스커트	플리츠 스커트	맞주름스커트	기타	전체	$\chi^2$
중학생	126(65.3)	25(13.0)	22(11.4)	16(8.3)	2(1.0)	2(1.0)	193(100)	5.40
고등학생	114(61.6)	27(14.6)	15(8.1)	18(9.7)	4(2.2)	7(3.8)	185(100)	

**Table 9.** 선호하는 바지(남학생) (단위 ; 명(%))

집단 \ 형태	스트레이트형	바지통이 좁은형	나팔형	기타	전체	$\chi^2$
중학생	76(74.5)	10(9.8)	5(4.9)	11(10.8)	102(100)	5.76
고등학생	62(76.6)	9(11.1)	4(4.9)	6(7.4)	8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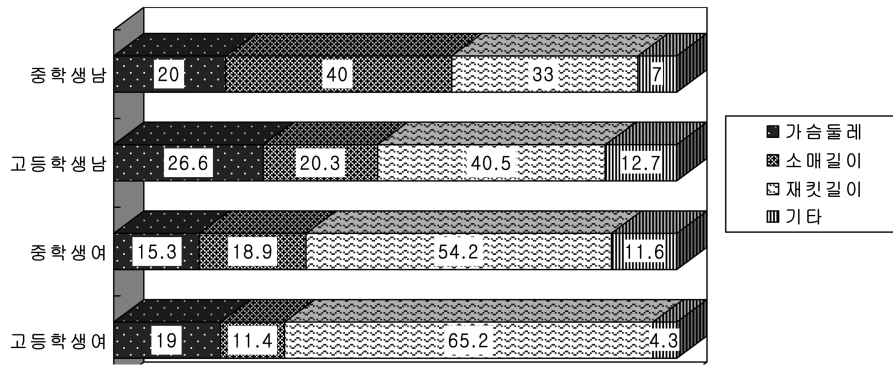


Fig. 4. 재킷 구입 시 주요 치수

커트 모양은 부분 주름 스커트를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고 싶은 스커트에 대해서는 무릎선 길이의 스커트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선호하는 스커트 모양은 중학생 64.8%, 고등학생 61.6%가 플레어스커트를 선호하였다(Table 8). 바지 모양은 현재 일자형을 가장 많이 입고 있으며, 선호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중·고등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9).

4.1.4. 중·고등학생 성별에 따른 교복치수선택

교복 재킷의 선택에 있어서 중·고등학생 모두 재킷의 길이를 대체로 중요시 여겼다. 남학생의 경우 중학생만 소매길이(40.0%)를 더 고려한다고 하였고 고등학생은 재킷길이, 다음으로 가슴둘레를 중요시하였다. 여학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재킷길이(54.2%, 65.2%)와 가슴둘레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Fig. 4). 바지선택 시 중학교 남학생은 바지 길이와 바지통을 동일하게 고려하였으며(36.0%), 고등학생은 바지통(40.3%)

을 중요하게 여겼다. 여학생들은 스커트 구입 시 중학생은 허리둘레(34.9%)를, 고등학생은 스커트 길이(34.2%)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Fig. 5). 이것은 남학생은 활동성에 영향을 주는 바지통을, 여학생은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스커트 길이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Table 10에서와 같이 큰 치수를 구입하는 비율이 중학생은 남학생 87.1%, 여학생 75.6%, 고등학생은 남학생이 72.5%, 여학생 40.0%였다. 이는 중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 시에 성장을 고려하여 남녀 모두 큰 치수를 구입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여전히 큰 치수 구입 비율이 더 높았으나 여학생은 딱 맞는 치수를 구입하는 비율이 57.9%로 큰 치수를 구입하는 비율(40.0%)보다 더 높아 여유분 없이 유행에 맞는 슬림 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구입한 교복의 치수 적합성은 재킷 부위별로 ‘작다’부터 ‘크다’의 순으로 1에서 5점의 점수를 평균값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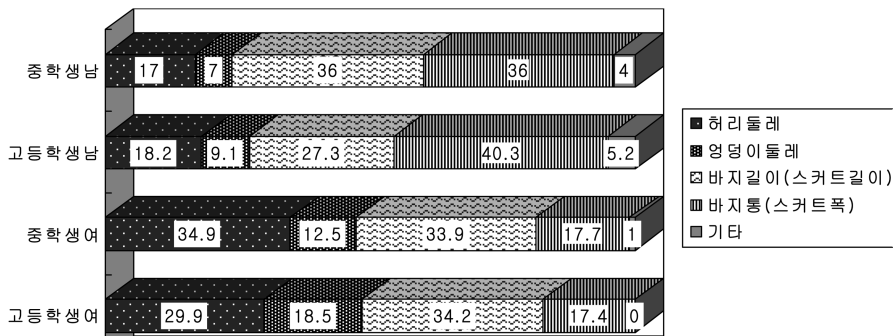


Fig. 5. 바지(남학생)와 스커트(여학생) 구입 시 주요 치수

Table 10. 교복 구입 치수

(단위 : 명(%))

집단	구입 치수		작은 치수 구입	딱 맞는 치수 구입	큰 치수 구입	기타	전체	$\chi^2$
	남	여						
중학생	남	2(2.0)	10(9.9)	88(87.1)	2(1.0)	102(100)	7.75	
	여	2(1.0)	44(22.4)	146(75.6)	2(1.0)	193(100)		
고등학생	남	1(1.3)	19(23.7)	58(72.5)	2(2.5)	80(100)	25.96***	
	여	3(1.6)	107(57.9)	74(40.0)	1(0.5)	185(100)		

\*\*\*P≤.001

Table 11. 재킷 치수 적합성

항목	중학생		t값	고등학생		t값
	남 (N=102) M(SD)	여 (N=193) M(SD)		남 (N=80) M(SD)	여 (N=185) M(SD)	
어깨너비	2.85(1.03)	3.56(0.83)	-6.10***	3.04(0.89)	3.10(0.81)	-0.49
가슴둘레	2.83(0.78)	3.50(0.83)	-6.56***	3.03(0.88)	3.07(0.94)	-0.34
허리둘레	2.93(0.84)	3.58(0.86)	-5.92***	3.23(0.86)	3.34(0.85)	-0.89
소매길이	2.45(0.93)	3.02(0.87)	-4.80***	2.92(0.88)	3.00(0.72)	-0.71
소매통	2.85(0.75)	3.32(0.73)	-4.87***	3.14(0.67)	3.17(0.65)	-0.41
재킷길이	2.72(0.91)	3.66(0.94)	-7.86***	3.21(0.80)	3.54(0.90)	-2.94**
평균	2.79(0.67)	3.44(0.63)	-7.89***	3.19(1.17)	3.19(0.59)	0.01

\*\*P<.01, \*\*\*P<.001

평균값 수치가 3에 가까우면 치수가 잘 맞음을 의미한다. 중학교 남학생들은 평균 여유감이 2.79로 교복이 약간 작은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특히 소매길이나 재킷길이가 짧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중학교 여학생들은 평균 3.44로 모든 항목에서 뚜렷하게 남학생들에 비해 교복의 여유감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P<.001). 부위별로는 재킷길이, 허리둘레, 어깨너비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또한 중학교 여학생들이 활동을 위한 기능적 여유보다 피티드 실루엣(Fitted silhouette)을 선호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생들은 재킷길이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적당하다는 경향을 보였다. 재킷길이에 대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남녀 간에 유의차를 보여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현재의 재킷길이가 길다고 인식하였다(Table 11).

Table 12에서는 남학생은 바지에 대해, 여학생은 스커트에 대해 치수를 비교하였는데 중학생은 평균 2.84, 고등학생은 평균 3.21로 고등학생이 바지 치수가 약간 크다고 하였다. 바지와 스커트의 치수적합성에 있어서는 남자 중학생은 재킷과 마찬가지로 바지에 있어도 바지 밑단과 바지 길이, 엉덩이둘레와 허벅지둘레에서 약간 작다고 하였다. 이는 중학교 남학생의 연령이 만 13~14세로 제 2성장 급증기에 해당하여 처음 구입한 바지가 작아진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경민(2003)의 연구에서도 바지 길이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짧게 느끼는 비율이 현저히

크게 나타났다. 스커트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평균 3.19로 보통보다 약간 큰 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모두 허리둘레와 스커트 길이에서 약간 크다고 응답하였고 중·고등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허리둘레는 허리둘레 변화를 커버할 수 있는 단단계 여밈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조절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4.2. 교복만족도

교복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디자인, 심리적 안정감, 활동성, 관리, 가격에 관한 5항목과 세부항목 24 문항을 조사하였다. Table 13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Table 14는 성별에 따른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비교한 것이다. 중학생은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활동성과 가격, 심리적 안정감, 관리용이성에 대한 만족도 순이었다. 고등학생은 활동성 만족도가 가장 낮고, 디자인, 가격, 관리용이성,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 4.2.1.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디자인 만족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중학생 2.38, 고등학생 2.64로 중학생이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자물복에서 처음 교복을 입은 중학생은 교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Table 12. 바지 및 스커트 치수 적합성

항목	중학생 (N=102) M(SD)	고등학생 (N=80) M(SD)	t값	항목	중학생 (N=193) M(SD)	고등학생 (N=185) M(SD)	t값
	허리둘레	3.03(0.87)			3.38(0.95)	-2.41*	
엉덩이둘레	2.79(0.90)	3.14(0.79)	-2.70**	스커트 엉덩이둘레	3.13(0.69)	3.09(0.71)	0.53
허벅지둘레	2.84(0.95)	3.29(0.96)	-2.98**	스커트길이	3.17(0.85)	3.25(0.74)	-0.94
밑위길이	2.88(0.85)	3.19(0.86)	-2.39*	스커트폭	3.16(0.72)	3.21(0.66)	-0.62
바지밑단	2.75(0.91)	3.12(0.84)	-2.66**				
바지길이	2.76(0.90)	3.13(1.06)	-2.40*				
평균	2.84(0.72)	3.21(0.70)	-3.29***	평균	3.19(0.56)	3.19(0.58)	-0.08

\* P<.05, \*\*P<.01, \*\*\*P<.001

**Table 13.**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세부항목별 교복 만족도

세 부 항 목		중학생 (N=295) M(SD)	고등학생(N=265) M(SD)	t값
디 자 인	재킷 색상이 마음에 든다	2.52(1.17)	2.92(1.25)	-3.88***
	바지 또는 스커트 색상이 마음에 든다	2.66(1.14)	2.88(1.17)	-2.26*
	나의 전체적인 외모를 돋보이게 한다	2.17(0.92)	2.38(1.01)	-2.60**
	나의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준다	2.27(0.99)	2.49(1.08)	-2.54*
	디자인이 유행에 맞고 패션 감각에 잘 맞다	2.06(0.91)	2.38(1.06)	-3.82***
	나의 개성을 교복에 표현할 수 있다	2.12(0.94)	2.31(1.00)	-2.31*
	평균	2.38(0.79)	2.64(0.81)	-3.94***
심 리 적 안 정 감	학생신분에 알맞고, 입으면 단정해 보인다	3.09(1.06)	3.36(0.98)	-3.05**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편안하다	2.83(1.00)	3.29(1.03)	-5.41***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	2.85(1.13)	3.05(1.12)	-2.08*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한다	2.61(1.10)	2.85(1.07)	-2.56*
	옷에 털 신경 쓰게 되어 학습에 집중 할 수 있다	2.66(1.13)	2.99(1.13)	-3.47***
	나는 교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08(1.14)	3.47(1.12)	-4.08***
평균	2.85(0.79)	3.17(0.82)	-4.61***	
활 동 성	학교 외에 입고 다닐 때 활동하기 편하다	2.40(1.16)	2.61(1.11)	-2.13*
	책상에 앉아서 학습할 때 활동하기 편하다	2.45(1.11)	2.54(1.05)	-0.97
	평균	2.43(1.04)	2.58(0.98)	-1.72
관 리 용 이 성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	2.99(0.95)	2.78(1.04)	2.38*
	얼룩이나 때가 쉽게 타지 않는다	3.10(1.03)	2.85(1.02)	2.87**
	여러 번 세탁해도 옷 모양이 변화지 않는다	3.50(1.02)	3.45(0.91)	0.65
	오랫동안 입어도 보풀이 생기지 않는다	2.66(1.24)	3.09(1.08)	-4.31***
	추위에 견디기 적당하다	2.94(1.08)	2.42(1.08)	5.63***
	질감이 좋다	2.68(0.89)	2.85(0.93)	-2.22*
	움직일 때 신축성이 좋다	2.45(0.84)	2.60(0.93)	-1.99*
평균	2.90(0.55)	2.86(0.54)	0.85	
가 격	교복을 입어 사복 값이 적게 든다	2.70(1.18)	3.06(1.18)	-3.55***
	교복 가격은 적당한 편이다	2.28(1.01)	2.06(1.00)	2.60**
	품질에 상관없이 가격이 저렴하면 좋겠다	3.44(1.21)	3.26(1.18)	1.79
	평균	2.81(0.70)	2.79(0.64)	0.27

\* P<.05, \*\*P<.01, \*\*\*P<.001

반면, 고등학생들의 중학교 때의 교복 착용 경험으로 교복 디자인에 익숙한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고등학생 디자인 만족도 6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재킷 색상이 마음에 든다’, ‘디자인이 유행에 맞고 패션 감각에 잘 맞다’, ‘재킷 개성을 교복에 표현할 수 있다’의 항목에서 중학생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고등학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디자인 만족도가 높았는데, 특히 재킷 색상에 대한 만족도에서 여학생의 평균점수는 3.26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착용중인 교복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난 연구(임주희, 2004)와 고등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소은, 2001)와 유사하였다. 전반적으로 교복을 처음 접한 여자중학생의 경우

교복디자인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므로 획일적인 디자인 제시보다는 각자의 개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다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4.2.2.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만족도

심리적 만족감에서도 중학생 평균 2.85, 고등학생 평균 3.1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복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중·고등학생 모두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한다’는 문항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교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학생신분에 알맞고 입으면 단정해 보인다’는 다른 항목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등교 시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복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교복의 단정한 이미지가



주는 소속감 혹은 학생신분의 상징성과 착용할 의복에 대한 걱정을 줄여준다는 심리적 편안함 요인 때문이라고 하였다(임주희, 2004).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이 사복보다 단정하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으나 교복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학업에 더 집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교복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교복을 입을으로써 학습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또한 교복을 입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은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편안하다’,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교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4.2.3. 활동성에 대한 만족도

활동성 평가는 중학생 평균 2.43, 고등학생 평균 2.58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책상에 앉아서 학습할 때 활동이 불편함은 물론, 일반적으로 입고 다닐 때도 다소 불편함을 나타내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교복의 소재, 다양하지 못한 치수체계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슬림한 유행 및 유행에 맞게 교복을 수선하는 경향 등으로 활동성이 더 감소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 선행연구에서 박현숙(1993)도 교복착용에 불만으로 ‘활동이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임주희(2004)는 교복의 불편함은 교복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근 들어 교복업체에서 다양한 소재와 아이디어로 기능성 향상에

Table 14. 남녀 중·고등학생 세부항목별 교복 만족도

세부항목	중학생		t값	고등학생		t값	
	남(N=102)	여(N=193)		남(N=80)	여(N=185)		
디자인	재킷 색상이 마음에 든다	2.77	2.39	2.71**	2.13	3.26	-7.46***
	바지 또는 스커트 색상이 마음에 든다	2.91	2.48	3.06**	2.73	3.14	-2.61*
	나의 전체적인 외모를 돋보이게 한다	2.41	2.04	3.31***	2.19	2.47	-2.10*
	나의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준다	2.45	2.18	2.27*	2.41	2.53	-0.81
	디자인이 유행에 맞고 패션 감각에 잘 맞다	2.26	1.95	2.88*	2.19	2.46	-1.77
	나의 개성을 교복에 표현할 수 있다	2.31	2.02	2.54*	2.26	2.32	-0.42
	평균	2.60	2.26	3.53**	2.37	2.76	-3.66***
심리적 안정감	학생신분에 알맞고, 입으면 단정해 보인다	3.05	3.12	-0.54	3.06	3.49	-3.30***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편안하다	2.79	2.84	-0.41	3.14	3.36	-1.39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	2.84	2.85	-0.04	2.88	3.12	-1.63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한다	2.65	2.60	0.38	2.46	3.02	-3.77***
	옷에 털 신경 쓰고 학습에 집중 할 수 있다	2.48	2.75	-1.98*	2.60	3.16	-3.77***
	나는 교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80	3.23	-3.09**	2.98	3.69	-4.35***
평균	2.77	2.90	-1.34	2.85	3.30	-3.75***	
활동성	학교 외에 입고 다닐 때 활동하기 편하다	2.39	2.41	-0.16	2.53	2.65	-0.84
	책상에 앉아서 학습할 때 활동하기 편하다	2.55	2.40	1.10	2.63	2.50	0.87
	평균	2.47	2.41	0.50	2.58	2.58	-0.01
관용성이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	2.91	3.03	-0.98	3.13	2.64	3.58***
	얼룩이나 때가 쉽게 타지 않는다	3.05	3.12	0.60	2.53	2.99	-3.32***
	여러 번 세탁해도 옷 모양이 변화지 않는다	3.25	3.63	-3.03**	3.51	3.42	0.79
	오랫동안 입어도 보풀이 생기지 않는다	2.62	2.69	-0.47	3.15	3.06	0.58
	추위에 견디기 적당하다	2.93	2.94	-0.05	2.74	2.29	2.96**
	질감이 좋다	2.63	2.70	-0.67	2.68	2.92	-1.80
	움직일 때 신축성이 좋다	2.45	2.45	0.05	2.45	2.66	-1.69
	평균	2.83	2.94	-1.50	2.88	2.85	0.40
가격	교복을 입어 사복 값이 적게 든다	2.60	2.76	-1.15	2.95	3.10	-0.97
	교복 가격은 적당한 편이다	2.37	2.23	1.17	2.19	2.00	1.40
	품질에 상관없이 가격이 저렴하면 좋겠다	3.04	3.65	-4.27***	2.94	3.40	-2.68**
	평균	2.67	2.88	-2.46*	2.69	2.83	-1.67

\* P≤.05, \*\*P≤.01, \*\*\*P≤.001

주력하고 있어 교복의 활동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청소년의 체형과 치수에 대한 고려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중학교 남학생은 평균 2.47, 여학생은 2.41이었으며, 고등학교는 남녀 모두 2.58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 4.2.4. 관리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

교복관리 용이성에 만족도 평균은 중학생 2.90, 고등학생 2.86으로 중·고등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입어도 보풀이 생기지 않는다', '추위에 견디기 적당하다'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고등학생들이 보온성에서 더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P \leq .001$ ). 특히 중학생들은 남녀 모두 교복 소재의 신축성에 가장 불만족하였다. 조사 대상 교복 재킷의 소재 혼용율은 모 80%, 폴리에스테르 20%이거나 모 80%, 나일론 20%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모 50%, 폴리에스테르 50%의 비율이었다. 바지 및 스커트의 경우 대부분이 모 60%, 폴리에스테르 40%와 모 50%, 폴리에스테르 50%였다. 이러한 소재는 세탁에 의해 형태가 변화하지는 않으나, 보온성과 신축성에서 만족도가 낮다. 이러한 결과는 교복 소재에 대해 수명, 세탁성, 보온성, 신축성에서는 비교적 불만이 없으나 구김과 정전기로 인한 더러움이 큰 불만으로 지적되었다는 김화순(2001)과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임주희(2004)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하여 교복 옷감의 세탁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옷감에 구김이 잘생기고 보온성이 떨어지며 신축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성별에 따른 관리 용이성 만족도 평균도 2.83~2.9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 교복이 남학생 교복보다 '얼룩이나 때가 쉽게 타지 않는다'고 평가되었으며 고등학교 남학생은 교복에 구김이 잘 생기지 않고 추위에 견디기 적당하다는 항목에서 여학생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4.2.5. 가격에 대한 만족도

'교복 가격은 적당한 편이다'는 24개의 문항 중 만족도가 낮아 교복 가격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불만이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품질에 상관없이 가격이 저렴하면 좋겠다'의 항목에서는 중·고등학생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교복을 입어 사복 값이 적게 든다' 항목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았다. 교복 가격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김화순, 정옥임(2001)도 학생들의 가격 불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교복 값이 비싸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임주희, 2004). 연구결과 좀 더 저렴한 가격의 교복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교복가격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공동구매로 교복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능성 소재나 특정한 디자인의 도입으로 교복 가격이 높아지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품질에 상관없이 가격이 저렴하면 좋겠다'는 항목에서 유의하게 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복을 입어 사복 값이 적게 든다고 응답하였으며 '교복 가격이 적당한 편이다'에 대해서도 여학생이 좀 더 낮게 평가하였다.

## 5. 결 론

다양한 브랜드 교복이 등장하면서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디자인과 기능성 소재 등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복이 중·고등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교복착용 경험이 다른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복의 착용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착용자 중심의 교복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복 착용실태에 있어 교복 구입 시 중학생은 '유명 브랜드인가'를 중요시하고, 고등학생은 '세련된 디자인'에 더 치중하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교복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업체의 치수체계는 중학생 82.1%, 고등학생 72.5%가 업체마다 달라 혼돈스럽거나, 알기 힘들다고 하였다. 교복 구입 시에 재킷은 재킷길이를, 바지에 있어서는 중학생은 바지 길이, 고등학생은 바지통을, 스커트는 중학생의 경우 허리둘레를, 고등학생은 스커트길이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둘째, 교복 변형에 대하여 '각자의 개성이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교복 변형에 대해 긍정적이며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43%, 고등학생 34%가 교복수선 경험이 있었으며, 수선이유로 치수가 잘 맞지 않은 것이 지적되어 기성복에서와 마찬가지로 교복에 있어서도 치수 불만족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교복의 형태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 공통으로 남학생은 중간영덩이선길이의 싱글 브레스트형(박스형태)재킷과 일자형의 바지를 선택하여, 현재 착용하는 남학생 교복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도 중·고등학교 차이 없이 허리선길이의 피트한 재킷과 무릎길이의 플레어스커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디자인, 심리적 안정감, 활동성, 관리, 가격의 교복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보통' 미만의 점수를 나타내어 현재 교복에 대하여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한 디자인, 심리적 안정감, 활동성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복관리와 가격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만족도가 약간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특히 중학생은 디자인 만족도가, 고등학생은 활동성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교복 착용 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더 많이 느꼈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 중학생은 교복이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대해, 고등학생은 교복의 가격에서 불만이 가장 컸고, 그 외 신축성 부족,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점 등에 대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고등학생은 교복의 선택이나 치수 인식, 교복 만족도 등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냈으나, 선호하는 교복 형태는 유사하였다. 고등학생은 교복 관리나 가격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합리적인 가격, 기후에 적용하기 쉽고 관리가 쉬운 소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중학생 교복은 디자인이나 활동성에 대한 불만이 더 크므로 교복의 실루엣, 형태 및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치수 및 형태,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복업체도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치수 설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디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산학 연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대상자인 중·고등학생 남녀 비율이 고르지 못하고 부산지역에 국한되어 결과를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능성 교복을 위한 업체의 개발 실태 및 중·고등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참고문헌

고에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지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구자명, 이명희. (1994).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153-163.  
 김덕하. (2004). *여자중학생 교복설계를 위한 체형별 치수체계 및 성장여유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세희. (2003). *여고생의 교복행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정. (2001).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 변형과 치수만족도 및 교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화순, 정옥임. (2001). 여중생의 교복 디자인 만족도에 대한 연구. *조선대 교과 교육 연구* 4(1), 175-199.  
 박정희. (1998). *여고생의 교복착용태도와 의복행동연구*. 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숙. (1993).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실태 및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경숙. (1991). 여고생의 교복 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263-270.  
 이정민. (2003). *남자 중학생의 교복 치수규격 설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희. (1996).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은. (2001).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교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자. (1992). 교복 착용여부와 청소년 비행행동간의 관계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1), 85-96.  
 이해경. (2000). *교복 변형 실태와 교복 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해주. (2006). 남자 중, 고등학생의 교복 치수 맞춤세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동복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4(1), 48-63.  
 임주희. (2004). *여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혜경, 김인숙. (1999). 여고생(16-18세)의 체형분류(제1보)-정면체형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3(6), 876-885.  
 정혜경, 김세희. (2004). 여고생의 교복 및 장식 행동에 관한 연구-경상남도 마산·창원지역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2(1), 136-150.  
 정혜원, 정인순. (2005).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평가와 교복 변형-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2), 179-186.

(2009년 3월 6일 접수/ 2009년 5월 14일 1차 수정/ 2009년 7월 1일 2차 수정 / 2009년 7월 21일 게재확정)